

05.25.2008 (주일)

감사하라 (시 136:1-5, 빌 4:6-7)

미국에 살면서 “Thanks for being so helpful” 아니면 “I really appreciate it”이라는 표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듣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감사(thanks)와 생각(think)은 하나입니다. “고마운 생각” 즉 kindly thought에서 시작된 것이 감사입니다. 왜 고마운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시 34:8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시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잘 하지 못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내놓을 것 없는 나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감사하는 자로 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염려하지 않도록 처지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빌 4:6 볼 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아뢰라’는 말은 헬라어로 gnorizo로서 ‘made known’ 즉 알게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알게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 15:16).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엡 6:18).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하나같이 다 ‘감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감사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선하시며 (시 136:1), 뛰어나시며 (시 136:2-3), 위대하시며 (시 136:4)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시 136:5)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 136:1-5). 그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영원히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 4:6에 보면 “But in everything” (all en panti) 다시말하면 ‘모든 일에’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든지, 어떤 생활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감사는 하지 말라해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순간 달혈던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에도 기도로 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과 끝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안되고 기도해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거절하면 (잠 21:13), 주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면 (약 1:6-8), 죄를 숨기고 죄를 품고 있으면 (시 66:18, 잠 28:13), 주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면 (약 4:3), 불화를 일으키면 (벧전 3:7, 마 5:23-24) 그리고 마음 속에 우상이 있으면 (겔 14:3, 골 3:5)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상 16:7).

우리 중심에는 감사 그리고 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나에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 요 5: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어느 누가 알지 못하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전 5:18 볼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감사는 기도를 기도답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가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시 50:23 볼 때 예배는 감사로 하는 것이기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잠 9:10). 감사는 사람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감사는 불평, 불만, 불신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골 4:2 볼 때 깨어 있는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가 감사에 있습니다!